

## 나이지리아 대선 결과 및 의의

### 1. 나이지리아 대선 결과

#### □ 굿럭 조나단 대통령 당선

- 나이지리아 대선이 두 번의 연기(2011년 1월, 2011년 4월 9일) 끝에 2011년 4월 16일에 36개 주에서 진행되었음.
- 1억 5,000만 명의 인구 중 7,400만 명이 유권자로 등록하였고, 총 투표자는 3,814만 명으로 집계되어 51.5%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음.
- 나이지리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, 집권당인 인민민주당(PDP)의 굿럭 조나단 (Goodluck Jonathan) 대통령이 58.9%의 득표율을 확보하여 31.98%를 득표한 진보변혁회의(CPC)의 무하마드 부하리(Muhammadu Buhari)를 앞지르면서 연임에 성공하였음.

< 표 1 >

2011년 나이지리아 대선 결과

후보	정당	득표율
굿럭 조나단	인민민주당 (PDP)	58.9%
무하마두 부하리	진보변혁회의 (CPC)	32.0%
누후 리바두	나이지리아 행동당 (ACN)	5.4%
이브라힘 세카라우	전나이지리아 인민당 (ANPP)	2.4%
기타	기타	1.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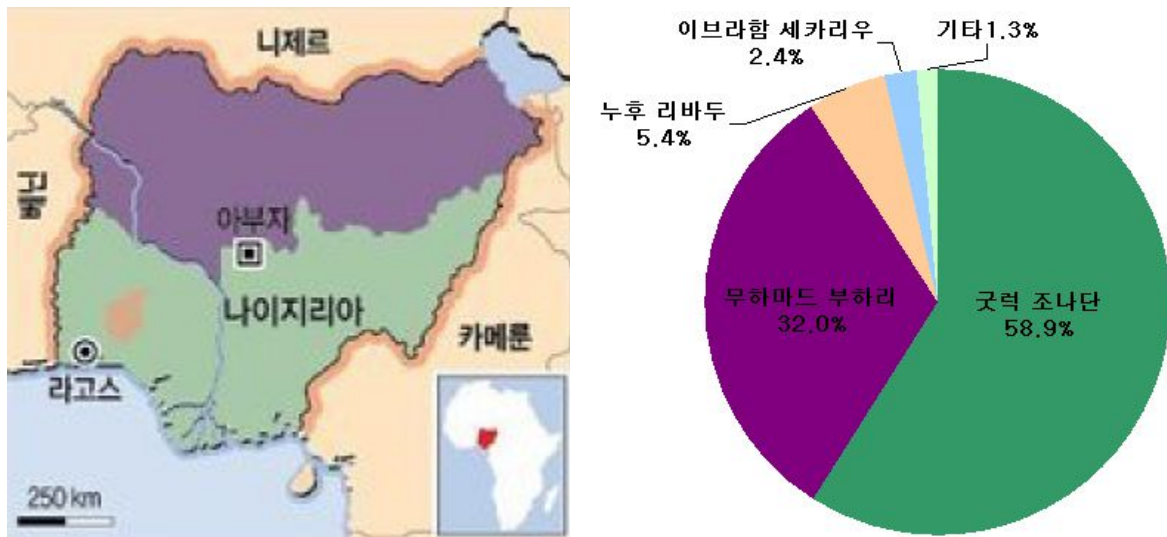
자료: allafrika.com

- 조나단 대통령은 24개 주에서 유효 득표율 25% 이상을 기록하면서 11개 주에서 25% 이상 득표한 부하리 후보를 제치고 1차 투표로 승리 하였음.1)

### □ 후보별 지역 쏠림 현상 심화

- 남부 기독교 출신인 조나단 대통령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24개 주에서 승리했으며, 북부 무슬림 출신인 부하리 후보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0개 주에서 승리하는 등 표심이 조나단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남부 지역과 부하리 후보를 지지하는 북부 지역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임.
- 조나단 대통령은 아콰이봄 주에서 95%의 득표율을 기록하였고, 고향인 바엘사 주에서는 득표율이 99.63%에 달하였음.
- 후보별 지역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남부와 북부의 지역 갈등이 깊어졌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.2)

< 그림 1 > 후보별 우세 지역



자료: 연합뉴스.

1) 나이지리아 대선에서는 1차 투표에서 특정 후보가 단순 다수를 확보하고 전체 36개 주의 3분의 2인 24개주 이상에서 유효투표의 25% 이상을 득표할 경우 당선이 확정됨.  
 2)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인구 대국으로 250여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북부의 하우사족, 서부의 요루바족, 동부의 이보족 등 주요 종족이 총 인구의 60%를 차지하고 있음. 하우사족은 이슬람을, 요루바족과 이보족은 기독교를 믿는 등 종족 간 종교도 다양하여 종족·종교·지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.

## □ 남부 지역 출신 대통령 첫 연임

- 조나단 대통령은 1999년 이후 인민민주당에서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출신이 번갈아 대선 후보로 배출되는 불문율을 깨고 대선 후보가 되었으며,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남부 지역 출신 대통령이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하게 되었음.
- 조나단 대통령은 인민민주당 경선에서 북부 출신의 전 부통령 아티쿠 아부바카(Atiku Abubakar)를 제치고 대통령 후보가 되었음.
- 진보변혁회의는 2009년에 북부 무슬림 출신의 부하리 후보에 의해 결성되어 남부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았으며, 야권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조나단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음.

## 2. 나이지리아 대선 실시 배경

### □ 독립 이후 군부 정권 지속

- 1960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인구가 많은 북부 지역이 연방 의회의 다수파가 되어 중앙정부를 지배하였으나, 1966년 군사 쿠데타가 발발하면서 군부 정권이 지배하게 되었음.
- 1966년 군사 쿠데타로 동부 이보족 출신의 장군 이론시가 군사정권을 수립하였음.
- 군부 정권 통치 기간 동안 북부 하우사족 출신의 지도자가 다수 배출되면서 지역 및 종족 간 갈등이 심화되었으며, 다수의 쿠데타 및 내전이 발생하면서 정치혼란이 지속되었음.
- 군부 정권은 민간 정권이 시작된 1999년까지 약 30년 간 지속되었으며, 1967년에 시작된 비아프라 내전으로 2년 동안 2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하였음.

## □ 민간 정부 출범 및 평화적 정권 이양

- 1979년과 1993년에 민간 정부로의 정권 이양이 시도되기도 하였으나, 매번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민정 이양은 실패로 끝났음.
  - 1979년의 민정 이양 시도는 부하리 후보의 쿠데타로 실패하였으며, 1993년의 민정 이양은 당시의 국방장관 아바차 주도의 쿠데타로 실패하였음.
- 1998년 6월 아바차 사망 후 새로 대통령이 된 아부바카르는 동년 8월에 민정 이양을 발표하였으며, 1999년 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로 군부 출신인 인민민주당의 올루세군 오바산조(Olusegun Obasanjo)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민간 정부가 출범되었음.
  - 오바산조는 2003년 4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되면서 2007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음.
- 2007년 4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북부 지역 하우사족 출신인 인민민주당의 우마루 무사 야르아두아(Umaru Musa Yar'Adua)가 70%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음.
  - 2007년 대선을 통해 독립 이후 처음으로 민선 정부간 정권 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음.

## □ 곳력 조나단 대통령 임기 만료로 2011년 대선 실시

- 2010년에 야르아두아 대통령이 지병으로 사망하면서,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나단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음.<sup>3)</sup>
- 조나단 대통령의 임기 만료로 2011년에 대선을 실시하게 되었고, 2011년 1월에 조나단 대통령이 청렴을 무기로 인민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연임에 도전하게 되었음.

3)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임기는 4년임.

- 인민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남부와 북부 지역이 번갈아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불문율이 깨지고 조나단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되면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음.

#### □ 거리 시위 및 폭동으로 인한 선거 연기

- 이번 대선은 당초 2011년 1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, 선거폭력과 부정 선거가 빈번히 발생했던 전례를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동년 4월 2일로 연기되었음.
- 2011년 4월 2일에 실시 예정이었던 총선이 선거 전 각지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투표 용품이 일부 투표소에 제 때 도착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4월 9일로 미루어짐에 따라, 대선 또한 4월 16일로 연기 되었음.

### 3. 나이지리아 대선의 의의

#### □ 부정선거 시비 여전

- 선거 과정에서 미성년자 투표, 투표함 빼돌리기 등 50여 건의 부정행위가 신고되었고, 선거에서 패배한 부하리 후보 측에서 투표 결과가 조작 됐다고 주장하는 등 부정선거 시비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.
- 부하리 후보는 조나단 대통령의 득표율이 출신지인 바엘사 주에서 99.63%를 기록하는 등 남부 일부 주에서 95~99%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였음.

#### □ 민주주의 정착의 시발점

- 나이지리아는 1999년 민간 정권 수립 이후 각종 선거 때마다 선거 조작 및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얼룩졌음.

- 2007년에 실시된 대선에서는 선거용지에 일련번호조차 기입되어 있지 않아 유럽연합(EU) 선거감시단 대표가 '신뢰할 수 없는 선거'라고 비난하였고, 전나이지리아 인민당의 부하리 후보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에 불복하기도 하였음.
- 이번 대선에서는 50여 건의 부정행위가 신고되기도 하였으나, 과거 대선에 비해 훨씬 공정하게 치루어지면서 정치 발전을 이루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.
- 유럽연합 외교 총책임자는 이번 선거를 민주화 이래 가장 신뢰할 만한 선거이며 나이지리아에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데 매우 중요한 행보라고 호평하였음.
- 나이지리아 역사상 가장 민주적으로 치루어진 이번 대선은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주주의 진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.

#### □ 국가 통합이 과제로 대두

- 남부 기독교 출신인 조나단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유혈 폭동으로 800여 명이 숨지고 6만 5,000여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, 종교·종족·지역 등 사회 갈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임.<sup>4)</sup>
-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남부 지역의 풍부한 석유자원의 혜택이 충분히 분배되지 않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로 인하여 이번 선거에 대한 북부 지역의 반발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.
- 이번 선거는 남부 지역 출신으로 첫 연임에 성공한 조나단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종교·종족·지역 등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국가 통합을 과제로 남기게 되었음.

4) 나이지리아에서는 대통령이 각 주로 재정을 배분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 대통령의 출신 지역이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.